

2018년 7월 27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속에 혼조 페이스북 -18.96% Vs AMD +1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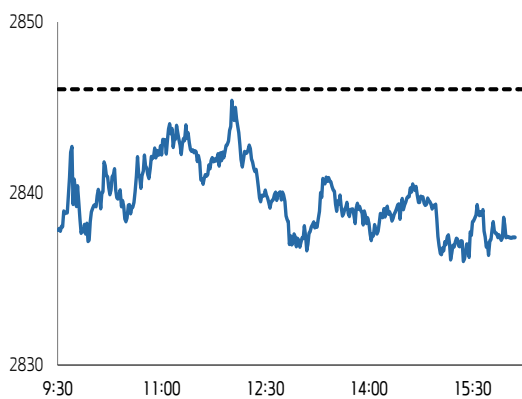
실적에 주목하는 시장참여자들

유럽증시는 미-EU 간의 무역분쟁이 완화된 데 힘입어 BMW(+4.42%), 폭스바겐(+3.96%), 다임러(+2.82%) 등 자동차주가 상승 주도. 미 증시는 장 초반 페이스북 급락에도 불구하고, AMD 와 컴케스트 등 일부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혼조세로 출발. 이후 큰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개별 기업들과 업종의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별 차별화장세가 이어짐(다우 +0.44%, 나스닥 -1.01%, S&P500 -0.30%, 러셀 2000 +0.60%)

미 증시는 일부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 급등락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짐. 이는 미-EU 간의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되고, 중국과의 무역분쟁 또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특히 페이스북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이후 급락하자 실적 추이에 더욱 주목한 모습.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는 강세를 보였고, S&P500 과 나스닥은 하락했으나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태로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은 모습. 시장 하락을 주도한 종목은 페이스북(-18.96%)과 더불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닐슨홀딩스(-25.23%), 개별 이슈가 부각된 바이오젠(-10.18%) 등이 급락. 이와 함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아마존(-2.98%)과 인텔(-0.51%)도 부담을 가지며 하락

반면, 서버 D 램을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업체에 판매하는 AMD(+14.33%)가 강력한 실적과 향후 전망을 발표하자 급등. 팹리스 업체인 자일링스(+9.59%) 또한 개선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하는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음. 더불어 미디어 업체인 컴케스트(+3.98%)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 장세. 업종을 살펴봐도 기술주와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금융이 부진한 반면, 에너지, 유틸리티, 산업재 등이 강세를 보이는 등 미 증시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특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국가	종가	D-1
KOSPI	2,289.06	+0.71	홍콩	28,781.14	-0.48
KOSDAQ	765.15	+2.17	영국	7,663.17	+0.06
DOW	25,527.07	+0.44	독일	12,809.23	+1.83
NASDAQ	7,852.19	-1.01	프랑스	5,480.55	+1.00
S&P 500	2,837.44	-0.30	스페인	9,780.00	+0.79
상하이종합	2,882.23	-0.74	그리스	755.41	+0.35
일본	22,586.87	-0.12	이탈리아	21,862.87	+1.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종목별 차별화

페이스북(-18.96%)이 향후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 했다. 이 여파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알파벳(+0.75%)와 넷플릭스(+0.06%)는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다만,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아마존(-2.98%)은 부담 속에 하락세를 보였다. 아마존은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2% 내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텔(-0.51%)은 2% 넘게 하락 중이며 램리서치(+2.58%)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3% 가까이 하락 중이다.

반면, 비메모리업체의 강자인 AMD(+14.33%)는 강력한 실적과 가속화 될 거라고 발표한 향후 전망에 힘입어 급등 했다. 펩시스 업체인 자일링스(+9.59%)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강세를 보였다. 견조한 국제유가 움직임은 엑손모빌(+0.78%), 코노코필립스(+0.41%) 등 에너지 업종의 상승을 불러왔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33%	대형 가치주 ETF	+0.46%
에너지섹터 ETF	+1.73%	중형 가치주 ETF	+0.58%
소매업체 ETF	+0.93%	소형 가치주 ETF	+0.76%
금융섹터 ETF	-0.04%	배당주 ETF	+0.57%
기술섹터 ETF	-1.54%	변동성 ETF	+0.33%
소셜 미디어업체 ETF	-3.48%	대형 성장주 ETF	-1.02%
인터넷업체 ETF	-2.27%	중형 성장주 ETF	+0.17%
리츠업체 ETF	+0.34%	소형 성장주 ETF	+0.48%
주택건설업체 ETF	+0.66%	신흥국 고배당 ETF	-0.71%
바이오섹터 ETF	-1.24%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7%
헬스케어 ETF	-0.28%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68%	물가연동채 ETF	-0.10%
반도체 ETF	+1.47%	Long/short ETF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9.12	+0.99%	+2.48%	+1.89%
소재	373.23	+0.61%	+1.77%	+3.32%
산업재	638.34	+0.84%	+1.96%	+6.40%
경기소비재	890.68	-0.50%	-0.64%	+3.30%
필수소비재	546.61	+0.52%	+1.42%	+3.33%
헬스케어	1,024.41	-0.20%	+1.90%	+6.41%
금융	465.79	-0.12%	+1.99%	+6.36%
IT	1,287.90	-1.64%	+0.94%	+6.83%
통신	145.07	+0.44%	-1.26%	-0.44%
유틸리티	267.99	+1.14%	+0.34%	+1.80%
부동산	202.11	+0.37%	-0.15%	+1.1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별 차별화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0.67% MSCI 신흥 지수도 1.1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88 계약)에 힘입어 0.75pt 상승한 298.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3.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EU 간의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KOSDAQ 이 바이오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하는 등 최근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이었다. 오늘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므누신 미 재무 장관이 “중국이 협상을 위해 진지한 변화를 보인다면 협상은 준비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높으며, 이 이후 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증시는 페이스북 급락 여파로 증시 주변 이슈보다는 실적에 주목하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러한 경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도 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준비되어 있어 이들의 결과에 따라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미 증시 마감 후 아마존, 인텔, 램리서치 등의 실적이 발표 되었다. 아마존의 경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외로 2%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램리서치와 인텔은 3% 내외 하락하고 있어 이들의 변화에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양호

미국 6 월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1.0% 증가 했다. 그러나 예상치(mom +3.0%)을 하회했다. 한편 근원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0.4%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mom +0.5%)를 하회했다.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0 만 8 천건) 보다 증가한 21 만 7 천 건으로 발표 되었다. 4 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 만 750 건) 보다 감소한 21 만 8 천 건으로 발표되며 여전히 고용시장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역외 위안화 1% 넘게 달러 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 척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상승했다.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홍해 입구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이 향후 사우디 수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미-EU 간의 무역분쟁 완화에 이어 미-중간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이었다. 다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은 상승 폭은 제한되었다.

달러지수는 2 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커들러 국가경제 위원회 위원장이 성장률 폭이 클 것이라고 언급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유로화가 dragged 총재의 발언의 영향을 받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dragged 총재는 “물가는 중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여전히 상당한 부양책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 했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달러 강세 여파로 0.5%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였다.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위안화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발표한 여파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상승 했다. 미-EU 간의 무역분쟁 타결에 합의한 데 이어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을 언급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한편, dragged 총재는 ECB는 통화정책을 장기간 저금리 상태에 머물 것을 언급 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는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여타 비철 금속은 미-EU 무역분쟁 완화에 기대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74%, 철근도 0.7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61	+0.45	+2.01	Dollar Index	94.738	+0.54	-0.45
브렌트유	74.54	+0.83	+2.70	EUR/USD	1.1646	-0.71	+0.03
금	1,235.30	-0.46	+0.11	USD/JPY	111.21	+0.21	-1.12
은	15,495	-0.60	+0.60	GBP/USD	1.3111	-0.59	+0.75
알루미늄	2,067.00	+0.24	+3.30	USD/CHF	0.9942	+0.23	-0.45
전기동	6,291.00	+0.02	+3.73	AUD/USD	0.7377	-1.05	+0.22
아연	2,584.00	-0.04	+1.51	USD/CAD	1.3074	+0.21	-1.50
옥수수	375.75	+0.67	+2.95	USD/BRL	3.7471	+1.52	-2.20
밀	536.50	-1.15	+6.40	USD/CNH	6.825	+0.95	+0.49
대두	876.00	+0.03	+1.68	USD/KRW	1119.30	-0.62	-1.23
커피	109.55	-1.31	+0.69	USD/KRW NDF 1M	1123.95	+0.62	-0.97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80	+0.56	+14.22	스페인	1.360	+1.20	+8.20
한국	2.550	+0.50	+1.00	포르투갈	1.722	-0.50	-2.20
일본	0.094	+2.00	+5.20	그리스	3.819	+1.30	-2.30
독일	0.404	+0.80	+7.40	이탈리아	2.701	+2.70	+19.90